

## [ 前 대통령 서거 ]

## 국민장 어떻게 치리지나



미리보는 前 대통령 국민장

## 경복궁 영결식후 서울광장 노제

## 버스 20여대 1천여명 운구행렬

국민장 마지막 날인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해는 전 국민의 눈물 속에 봉하마을을 떠나 서울로 향하게 된다.

27일 노 전 대통령측에 따르면 29일 오전 5시30분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출발하는 버스에서 열리는 발인예式에는 유가족과 친인척, 참여정부 인사 등이 참석한다.

아들 건호씨가 솔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등 경남의 어느 가정과 비슷한 관습에 따라 제사를 지낸다. 발인예式에 걸리는 시간은 10여분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를 담기 위한 관은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평범한 관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분향소가 차려진 마을 광장을 가득 메운 조문객들의 눈물 속에 운구차량으로 옮겨지고, 곧장 서울 영결식장을 향해 떠나게 된다.

26일 오후부터 제작한 만장 1천700여개가 마을 입구까지 운구행렬을 뒤따르고 조문객들도 봉하마을을 빠져나가는 노 전 대통령을 배웅한다.

운구 행렬은 선도차가 앞장서고 영정을 실은 차와 노 전 대통령의 유해를 실은 영구차, 유족 차량, 장의위원회 차량 등이 뒤따른다. 맨 앞과 맨 뒤, 영구차 양옆에서는 경찰 호위차량이 삼엄한 경호를 하게 된다.

유가족과 친인척, 참여정부 각료와 참모, 비서진, 경호원, 봉하마을 주민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버스에 나눠 타고 운구 차량을 뒤따른다. 운구 행렬에 포함될 인원은 최소한 버스 20여대에 1천명 안팎의 인원이 합승해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례위원회측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경복궁 앞에서 열리는 영결식에 참석하려면 늦어도 오전 6시 전에는 봉하마을을 빠져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구 행렬은 남해고속도로를 거쳐 상경한 뒤 경복궁에서 열리는 영결식과 서울광장 노제에 참가한다. 가족들은 '수원시 연화장'에서 노 전 대통령의 유해를 화장한 뒤 오후 9시 전후에 봉하마을로 돌아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는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 정토원에서 거행된다.

노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으며 정신적 후원자로 활동했던 선진규 봉화산 정토원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49재를 정토원에서 갖기로 오늘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 원장은 "유골함은 일단 법당에 안치하게 되지만 안치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른다"며 "유골을 모시고 있는 동안 산골이나 수목장, 매장 등 입장 형태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노 전 대통령은 유서에 적었던 대로 '자연의 한 조각'으로 변한다.

## 친노인사 대거 참여 1,300여명 규모

## 시상 최대 장의위원회 구성

서울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서 오는 29일 오전 11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國民葬)을 치르는 장의위원회가 시상 최대인 1천30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유족 측과 협의해 장의위원회를 1천383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장의위원회에는 입법·사법·행정 3부의 전·현직 고위공무원 1천10여명과 대학총장, 종교계, 재계 등 기타 사회지도층 인사 260여명, 유족이 추천한 친지 및 친분이 있는 인사 110여명이 포함됐다.

공동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맡고, 집행위원장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운영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선임됐다.

장의위원회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노 전 대통령측 추천 인사가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어립잖아도 절반이 노 전 대통령측 추천 인사로 구성돼 있다.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최초로 국민의 손으로 뽑힌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유족측이 정부와 합동으로 준비하면서 과거 국민장에 비해 장의위원회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고문에는 전직 대통령들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사부'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신적 자주' 송기인 신부, 고 건 이해찬 한덕수 전 총리 등이 포함됐다.

## “권여사, 역대 시계인 줄 모르고 받아”

## 문재인 前 비서실장 밝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시계선물을 받긴 했지만 1억원짜리 명품시계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2006년 9월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1억원짜리 명품시계 2개를 내외에게 전달했고, 이를 포괄적 뇌물죄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날 주장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통해 이 시계를 전달했고, 건평씨 부인 민미영씨는 권 여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권 여사는 "되돌려 주든지, 형님이 쓰시라"고 말하면서 민씨와 몇 차례 승강기를 벌었지만 결국 시계를 받았다. 문 전 실장은 "권 여사는 '큰집에서 가져가서 쓰시라'고 했고, 민씨는 '우리도 이런 것은 못 받는다'고 사양했다"며 "권 여사는 시계 장식이 요란해 노 전 대통령에게 드려도 사용할 만한 시계가 아니라고 판단, 민씨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몇 차례 밀고당기기를 하다가 결국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언론 보도를 통해 '권 여사가 이 시계를 눈두덩에 버렸다'는 식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대단히 억울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눈물 2006년 8월27일 노사모 회원들과 비공식 면담 중 눈물 흘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 盧 前 대통령 미공개 사진 공개

## 소탈했던 일상 고스란히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탈했던 생전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이 공개돼 네이트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례위원회는 27일 오후 노 전 대통령이 폐쇄를 선언한 뒤 개편된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봉하마을'에 노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미공개 사진 48장을 올렸다.

2003년 후반부터 2008년 초 사이에 촬영된 이 사진들은 나이지리아와 아파가니стан 피랍 사건 보고를 들은 노 전 대통령이 고뇌하는 장면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 꾸밈없는 그의 소탈한 모습들이 그대로 잘 담겨 있어 그를 기억하는 네이트온들의 감회를 새롭게 하고 있다.

특히 퇴임 직전인 지난 해 1월30일 권양숙 여사의 회갑 때 노 전 대통령이 작은 선물을 직접 건네며 쑥스러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과 공군 1호기에서 권여사와 함께 식

사하는 장면, 평창에서 곤돌라에 탑승한 사진 등은 '애처가'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 손녀에게 과자를 줄 듯 하다 빼앗아 먹고, 노사모의 산행에 참가한 어린이의 사탕도 자신의 입에 넣는 장난기어린 모습들은 유난히 어린이들을 좋아했던 그의 품성이 그대로 녹아있다.

이밖에 청와대 경내의 잔디밭이나 소파에서 다리를 쭉 펴 쉬는 장면과 뉴질랜드 공군항공기에서 명명해진 귀를 뚫느라 애쓰는 모습, 비서진이 마련한 케이크를 자르기도 전에 엄지 손가락으로 살짝 맛보다 권 여사에게 들킨 장면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보게 한다.

이 같은 노 전 대통령의 비공개 사진이 공개되자 사람사는 세상 봉하마을 홈페이지는 접속이 폭주해 일시적으로 속도가 느려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견학 온 소녀와 2007년 9월29일 청와대에 관광 온 소녀를 목마 태운 노무현 전 대통령.



“귀막힐땐 이렇게” 2006년 12월7일 뉴질랜드 공군기를 타고 오클랜드로 가는 도중 기압차이 때문인 귀막힘 현상을 대비하는 시범을 보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휴식 2007년 1월31일 회의를 마치고 잠시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